

## 한시의 평측법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연구

### An Acoustic Study of Pitch Rules of Chinese Poetry

조 성 문\*

Sung-Moon Ch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itch rules of Chinese poetry. Pitch rules are concerned with the high tone and the low tone. Because Chinese poetry is a fixed form of verse, it must keep pitch rules to compose Chinese poetry. But until now there has been no acoustic study of pitch rules of Chinese poetry. So, for the first tim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pitch rules of Chinese poetry acoustically. Pitch contours were analyzed from the sound spectrogram made by Praat. Results showed that actual pitch patterns did not coincide with theoretical pitch rules in reciting Chinese poetry. Therefore, in studying Chinese classics, the Chinese poetry,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to be recited according to original Chinese pitch rules, must now be considered in terms of how pitch rules may have changed over time in Korea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n scholars.

**Keywords:** pitch rules, Chinese poetry, tone, acoustic study, spectrogram

#### 1.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시(漢詩)의 평측법(平仄法)을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sup>1)</sup> 평측법이란 음의 높낮이인 저조와 고조를 말하는데, 저조는 평성(平聲)이고 고조는 측성(仄聲)이라고 한다. 이러한 평측은 한시를 짓거나 독송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한시는 대표적인 정형시이기 때문에 그 평측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한시의 평측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는지를 음성실험을 통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sup>2)</sup> 과연 한문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인 한시의 평측이 실제로 독송할 때 그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한시의 저조와 고조라는 평측의 실현을 음향분석프로그램인 Praat을 이용하여 실제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 1) 논문의 세부적인 사항에 많은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분들 덕분에 본 논문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 2) 한시는 아니지만, 민요, 현대시, 판소리의 운율에 관한 연구로는 구희산(2003), 김장순(2002), 김현기 외(2004), Moon(2001) 등이 있다.

한시는 표현 매체가 갖는 전달의 특수성 때문에 오늘날 그 효용가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한시는 전문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사가 되고 있을 뿐, 이미 낡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에 치중이 되어 한시가 추구한 정신의 깊이나 미학의 너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운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그러한 한시의 운율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길을 열어 한시의 연구에 새로운 공헌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시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문학계에서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평측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단지 한시의 평측이 어떤 모습인지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음향음성학적 관점에서 한시의 고저를 확인해 봄으로써 추상적인 학문의 세계를 실제적인 과학의 세계로 이끌어내어 확인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한시의 평측

국어의 운율적 자질 중 장단은 남아 있고, 고저는 경상 방언에 남아있을 뿐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단도 이제는 거의 사라져 변별적 기능을 하지 않고 있어서 표준 발음법에서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어에서 고저장단의 소멸은 시대적 변동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한시에 사용되는 한자어에서 그 운율은 쉽사리 변동될 수 없었다. 그것은 한시의 구성 한자에 남아있는 고저라는 운을 때문이었다. 한시를 독송함에 있어서 만일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조작한다면, 이는 전통적이고 정확한 한시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sup>3)</sup> 왜냐하면 전문가가 한시의 독송 소리를 들으면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읽는지 어떤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측은 한시에 있어서 가장 엄격히 요구되는 음악적 외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시의 평측에 관한 교육을 따로 실시한 것도 아니고, 고저의 논리적 체계를 의식적으로 학습하게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평측이 철저하게 교습되었던 것은 한시의 독송 때문이었다. 당시의 필수 교과인 경전을 주축으로 하는 한시 학습은 독송으로 시작해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고저의 가락을 중시하여 반드시 음독을 했던 것이다. 천자문에서 경서에 이르기까지 울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독음은 반드시 그 글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의 평측 구조에 따라 고저가 잡혀 나가게 마련이었다. 스승의 범독에 따라, 또는 그때그때의 교정에 따라, 암송에 이르기까지 독송을 거듭하는 가운데 평측은 저절로 몸에 배게 체득되어지는 것이었다. 특히 한시의 독송에 있어서는 평측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 평측의 구조가 음악적, 율동적으로 배려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시를 독송하는 사람의 감흥에 따라 내재하여 있는 평측을 약간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시의 평측 구조는 그 자체가 음악적이요 율동적인 한 악곡으로 작곡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시부가 다 그러하듯, 한시란 이미 마련된 20 여 가지의 곡에 가사를 붙인 것과도 같

3) 손종섭(1999)은 이 경우를 ‘돌글’ 또는 ‘장작글’이라 하였다. ‘돌글’이란 전통에 없는 제멋대로의 글, 곧 ‘돌봄’의 글이란 뜻이요, ‘장작글’이란 장작을 패듯 함부로 무식하게 읽는 글이란 뜻이다.

아서 그 악곡대로 발성만 하면 저절로 신바람이 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매개자가 평측에 통달하게 되면, 스스로 시부를 창작함에 있어서도 아무 어려움이 없이 자연스럽게 고저를 이상적으로 안배하여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시의 독송 가락은 개개인의 임의에서가 아니라, 그 시문의 평측 구조에 따라 고저가 정해지므로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읽거나 읊는 가락만 들음으로도, 그 글의 내용을 옳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다(손종섭, 1999).

한시의 평측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된다. 무겁고 높은 성질의 소리를 ‘측성’으로 삼았고, 이와 대조적 성질인 짧고 가볍고 낮은 소리를 ‘평성’으로 삼아, 평측 양립의 체계로 다루었다. 다시 말하면 평성은 가장 짧고 가볍고 낮은 경쾌한 소리요, 측성은 평성보다는 길고 묵직하고 높은 중후한 소리다. 따라서 평측이란 이러한 대조적 성질을 가진 평성자와 측성자를 규칙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의 음악적 율동성을 말하는 것이다(손종섭, 1995; 심경호, 2006; 정민, 1996).

한시의 종류에 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당나라 시 300수를 엮은이는 시를 고시(古詩), 율시(律詩), 절구(絶句)의 세 가지로 나누고 또 여기에 모두 악부(樂賦)라는 것을 덧붙였다. 고시, 율시, 절구는 또한 오언(五言)과 칠언(七言)으로 나누어진다. 글자 수로 보면 사언시(四言詩), 오언시(五言詩), 칠언시(七言詩)가 있지만, 당나라 이후에는 사언시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시는 오언시와 칠언시로만 분류한다. 오언은 다섯 글자가 한 구절이 되고, 칠언은 일곱 글자가 한 구절이 된다(王力,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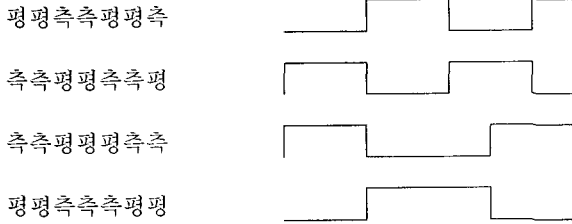
그런데 오언과 칠언은 모두 그 평측의 구조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시를 지을 때 반드시 그 구조를 지켜야만 한다. 미리 압운자를 마련해 놓아야만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 모든 글자들이 압운자와 평측자의 위치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시는 오언이든 칠언이든 그 구조가 정해져 있게 마련이다. 오언과 칠언의 정형화된 평측 구조를 시각화 해보면 다음의 (1), (2)와 같다.<sup>4)</sup> 그것을 보면 평성과 측성이 적절하게 대조를 이루며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한시는 이러한 평측의 구조를 통해서 운율적인 정형을 이루었던 것이다.

(1) 오언의 평측 구조



4) 이것은 이론적인 평측의 구조를 본 연구자가 시각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2) 칠언의 평측 구조



위 (1)과 (2)를 보면, 오언시든 칠언시든 1 절과 2 절, 3 절과 4 절이 각각 평측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 또한 칠언시는 오언시 각 절의 앞에 대조를 이루는 두 개의 평성이나 측성을 추가함으로써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이처럼 오언과 칠언은 서로 관련을 갖고 있으며, 모든 한시가 완벽한 고저의 대조를 갖고 있다.

## 3. 실험 방법

## 3.1 실험 자료

본 연구의 실험 자료는 한시 4 편이다. 한시 4 편은 오언시 2 편, 칠언시 2 편으로 균형을 맞추었다. 오언은 “途中寒食(도중한식)”, “別杜審言(별두심언)”이고, 칠언은 “回鄉偶書(회양우서)”, “楓橋夜泊(풍교야박)”이다. 특히 이 시들을 선택한 것은 한시의 전문가인 피실험자의 제안 때문이었다. 오언과 칠언의 평측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시라는 것이다. 각 시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 오언시

## ㄱ. 途中寒食(도중한식) - 宋之間(송지문) 지음

馬上逢寒食(마상봉한식) 말 위에서 한식을 만나니  
 途中屬暮春(도중속모춘) 도중에 저문 봄이 되었네.  
 可憐江浦望(가련강포망) 가엾구나, 강포에서 바라보니  
 不見洛橋人(불견락교인) 낙교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이.

## ㄴ. 別杜審言(별두심언) - 宋之間(송지문) 지음

臥病人事絕(와병인사절) 병으로 늙자 인사가 끊어졌는데  
 嗟君萬里行(차군만리행) 아, 그대는 만리 먼 길을 떠나는구려.  
 河橋不相送(하교불상송) 하교에서 서로 전송하지 못하니  
 江樹遠含情(강수원함정) 강가의 나무들도 멀리 정을 머금으리.

## (4) 칠언시

## ㄱ. 同鄉偶古(회향우서) - 賀知章(하지장) 지음

少小離鄉老大回(소소리향노대회) 젊어서 고향을 떠났다가 늙어서 돌아오니  
 鄉音無改鬢毛衰(향음무개빈모쇠) 고향 말씨는 변함없는데 살쩍만 노쇠하였네.  
 兒童相見不相識(아동상견불상식) 아이들 서로 보며 알아보지 못하고  
 笑問客從何處來(소문객종하처래) 웃으면서 문기를 “손님은 어디서 왔느냐?” 하네.

## ㄴ. 楓橋夜泊(풍교야박) - 張戒(장계) 지음

月落烏啼霜滿天(월낙오제상만천) 달 지고 까마귀 울며 서릿기운 하늘에 가득한데  
 江楓漁火對愁眠(강풍어화대수면) 강풍과 어화가 시름겨운 졸음과 마주하였네.  
 姑蘇城外寒山寺(고소성외한산사) 고소성 밖의 한산사에서  
 夜半鐘聲到客船(야반중성도객선) 한밤중의 종소리가 객선에 들려오네.

## 3.2 피실험자

한시의 평측을 실험하기 위해 저명한 한문학자인 조○○(80 세)를 피실험자로 선정하였다. 그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한문학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특히 한시의 독송을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해 왔기 때문에 피실험자로 선정된 것이다. 피실험자가 한 명이어서 실험 결과의 일반성이 조금 미흡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실험자의 나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한시의 평측을 정확하게 독송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 구전으로 학습을 해 왔고,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이제는 독송에 대한 구전 학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이 한시의 평측을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최대한 더 많은 피실험자를 찾아서 본 연구의 아쉬움을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려고 한다.

## 3.3 녹음 및 분석 방법

피실험자에게 준비한 한시 자료를 평상시의 방법과 동일하게 독송하도록 하여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하였다. 피실험자가 노령이라서 여러 번 녹음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하기 전에 연습을 하게 한 뒤 실제 녹음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녹음기는 삼성의 VR-P500C 디지털 녹음기였다. 녹음된 자료를 분석한 프로그램은 Praat이다. 피치 곡선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기본주파수, 지속시간, 진폭 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시의 고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절마다 구분하여 피치 곡선의 변화를 측정,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전반적인 한시의 피치 곡선을 측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면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 4. 실험 결과 및 분석

## 4.1 오언시 분석

오언시의 녹음 자료를 절로 나누어서 각각 피치의 변화를 Praat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두 편의 한시가 절마다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피실험자의 독송이 일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분석한 평측의 실현이 2 장에서 제시했던 이론적인 평측의 구조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점은 그림 자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 분석 부분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장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장단이 일정한 유형을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한시의 음악적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독송자가 고저뿐만 아니라 장단도 고려해서 독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편 실제 한시를 독송할 때 한자 사이에 우리말인 ‘토(ㅏ)’를 넣어서 발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토’는 ‘한문의 구절 끝에 붙여 읽는 우리말 부분’을 의미하는데, 한문으로 된 문장은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고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토’를 넣는 것이다. 다만 이 ‘토’는 항상 일정하지는 않고 제시된 상황에 맞춰서 독송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한다. 그러므로 실제 분석에서는 ‘본문’은 한자어로 표시하고 ‘토’는 우리말로 표시하겠다.

분석 결과를 각 절별로 대비하여 살펴보겠는데 우선 1 절부터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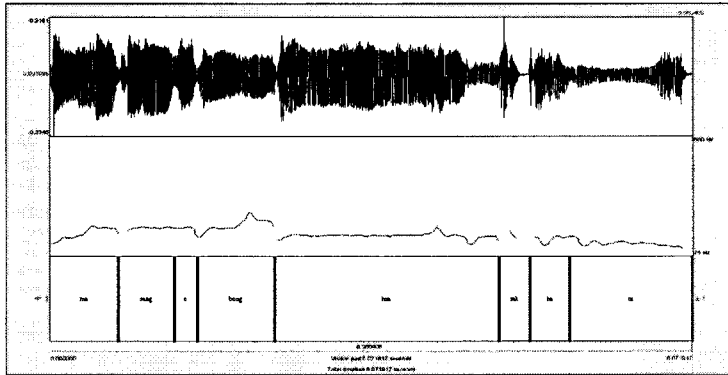


그림 1. 途中寒食 1 절(馬上에逢寒食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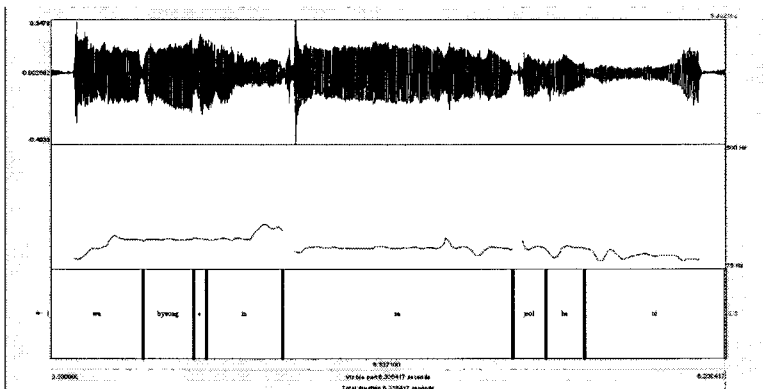


그림 2. 別杜審言 1 절(臥病에人事絶하니)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 두 편의 1 절이 같은 유형의 고저와 장단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고조는 150~200 Hz, 저조는 100~150 Hz의 영역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2 장에서 제시한 평측의 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시의 평측 구조는 ‘축축평평축’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축축축평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장단의 경우 네 번째 한자어를 아주 길게 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자어는 그보다 짧게 나타났고, 중간 톤은 마지막 톤보다 매우 짧게 나타났다.

이번에는 2 절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 결과는 역시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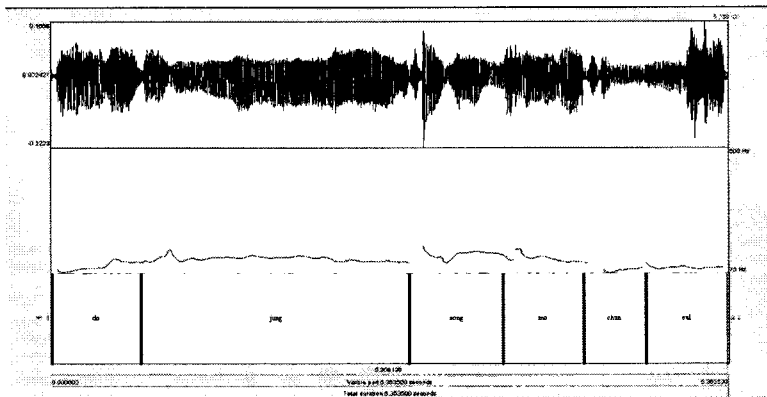


그림 3. 途中寒食 2 절(途中屬暮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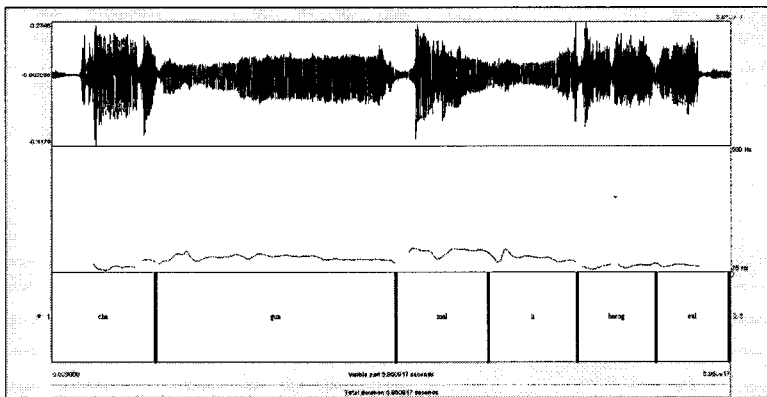


그림 4. 別杜審言 2 절(嗟君萬里行을)

<그림 3>과 <그림 4>를 보면 두 편의 2 절이 역시 같은 유형의 고저와 장단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고조는 115~165 Hz, 저조는 75~115 Hz의 영역에서 관찰되었다. 1 절에 비해서 2 절의 고저 영역이 다소 축소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2 장에서 제시한 평측의 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시의 평측 구조는 ‘평평축축평’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축축축평’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다. 장단의 경우 두 번째 한자어를 아주 길게 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자어는 그보다 짧지만 비슷한 길이를 보여주었고, 토도 마찬가지였다.

3 절에서도 이론과 실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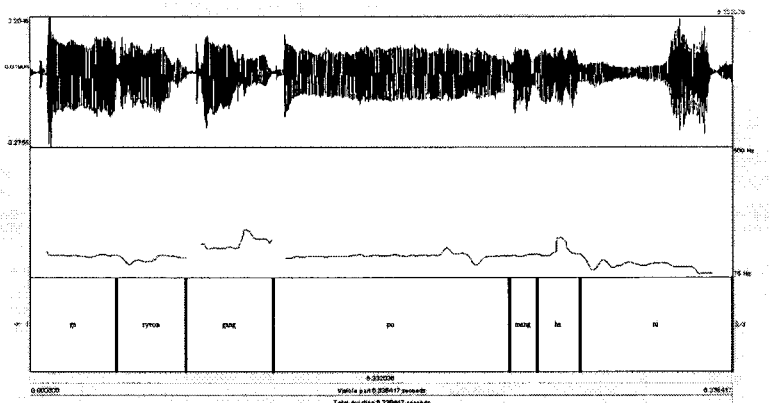


그림 5. 途中寒食 3 절(可憐江浦望ha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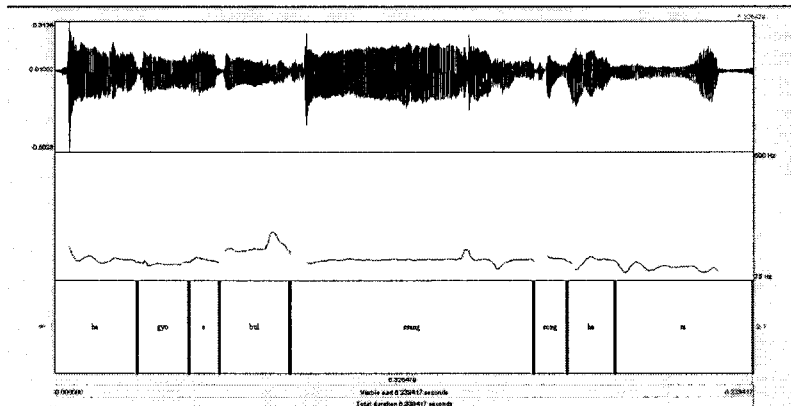


그림 6. 別杜審言 3 절(河橋에不相送hani)

<그림 5>와 <그림 6>을 보면 두 편의 3 절이 같은 유형의 고저와 장단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고조는 170~230 Hz, 저조는 115~170 Hz의 영역에서 관찰되었다. 3 절의 고저 영역이 1 절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 장에서 제시한 평측의 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시의 평측 구조는 ‘평평평측측’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평측평평’으로 나타났다. 장단의 경우 1 절과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한자어를 아주 길게 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자어는 그보다 짧게 나타났다. 다만 중간의 토는 <그림 6>의 시에서만 관찰되었는데 역시 짧게 나타났다.

4 절도 다른 절과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체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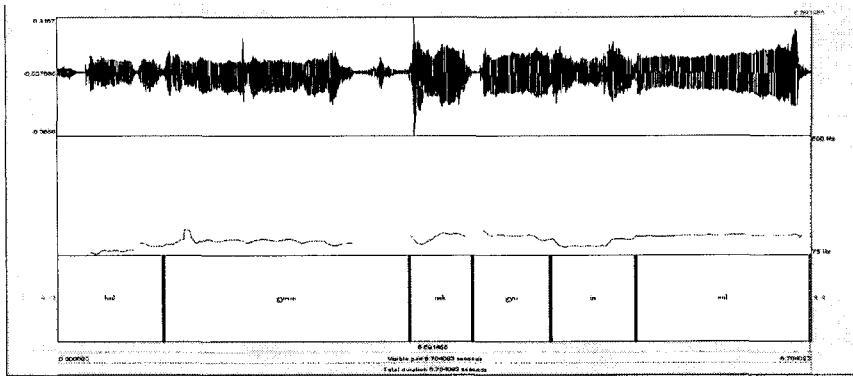


그림 7. 途巾寒食 4절(不見洛橋人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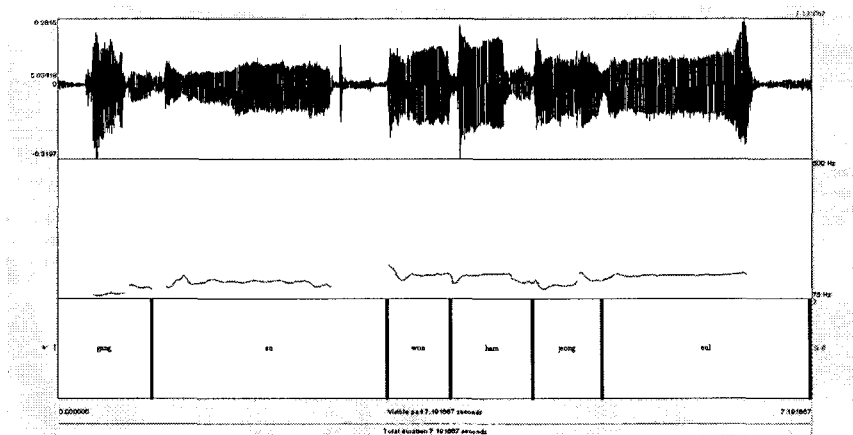


그림 8. 別杜審言 4절(江樹遠含情을)

<그림 7>과 <그림 8>을 보면 두 편의 4 절이 같은 유형의 고저와 장단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고조는 115~170 Hz, 저조는 80~115 Hz의 영역에서 관찰되었다. 4 절의 고저 영역이 2 절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 장에서 제시한 평측의 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시의 평측 구조는 ‘축축축평평’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축축축평’으로 나타났다. 장단의 경우 2 절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한자어를 아주 길게 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자어는 그보다는 짧지만 비슷한 길이를 보여주었다. 다만, 마지막 토는 약간 길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오언시의 이론적인 평측의 구조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5) 오언시의 평측 구조의 이론과 실제 비교

## ㄱ. 이론(장단 없음)



## ㄴ. 실제(장단 있음)



(5)를 보면 모든 절이 이론과 실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론에서는 1 절과 2 절, 3 절과 4 절이 평측의 대칭을 이루나, 실제 녹음 자료에서는 그러한 대칭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녹음 자료 두 편의 피치 곡선이 같기 때문에 독송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이론과 실제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녹음 자료의 경우 1 절과 3 절의 고저 영역이 비슷하고, 2 절과 4 절의 고저 영역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1 절과 3 절의 영역이 2절과 4절보다 조금 컸다. 그러므로 실제 한시를 독송할 때 1 절과 3 절의 평측은 좀더 두드러지게 하지만, 2 절과 4 절은 그보다 약하게 평측을 드러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절과 절 사이의 평측도 고려해서 독송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시의 전체적인 음의 고저 변화에 대한 이해라고 본다. 즉, 1 절, 2 절, 3 절, 4 절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피치가 1 절에서 상승하니깐 그 다음에 있는 2 절에서 하강하게 되고, 다시 3 절에서 상승하고 4 절에서 하강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인 것이다.

장단의 경우 이론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실제에서는 발견되었다. 짧은 경우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긴 소리의 경우는 일정하게 나타났다. 고저와 마찬가지로 1 절과 3 절이 같았고, 2 절과 4 절이 같았다. 1 절과 3 절의 경우는 네 번째 한자음이 길게 나타났고, 2 절과 4 절의 경우는 두 번째 한자음이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고저나 장단 모두 1 절과 3 절, 2 절과 4 절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2 칠언시 분석

칠언시의 녹음 자료도 절로 나누어서 각각 피치의 변화를 Praat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두 편의 한시의 절이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피실험자의 독송이 일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역시 문제는 실제 분석한 평측의 실현이 2 장에서 제시했던 이론적인 평측의 구조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오언시와 마찬가지로 칠언시도 이론적인 부분에서 장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실제는 장단이 일정한 유형을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토도 역시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과 토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다.

분석 결과를 각 절별로 대비하여 살펴보겠는데 우선 1 절부터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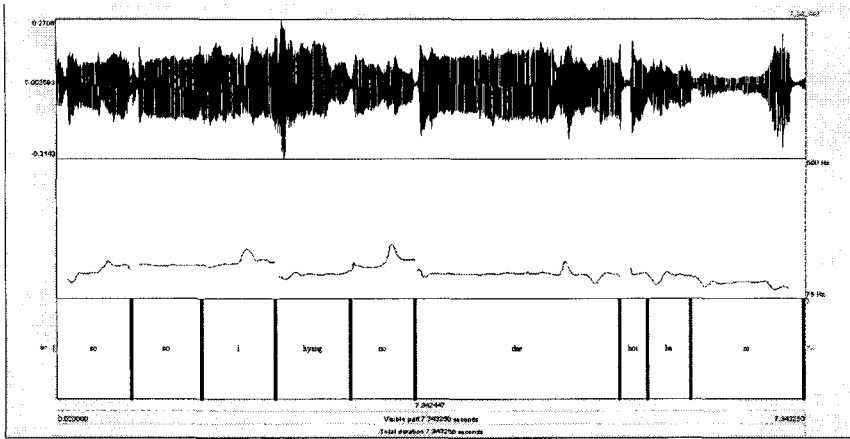


그림 9. 回鄉偶書 1 절(少小離鄉老大回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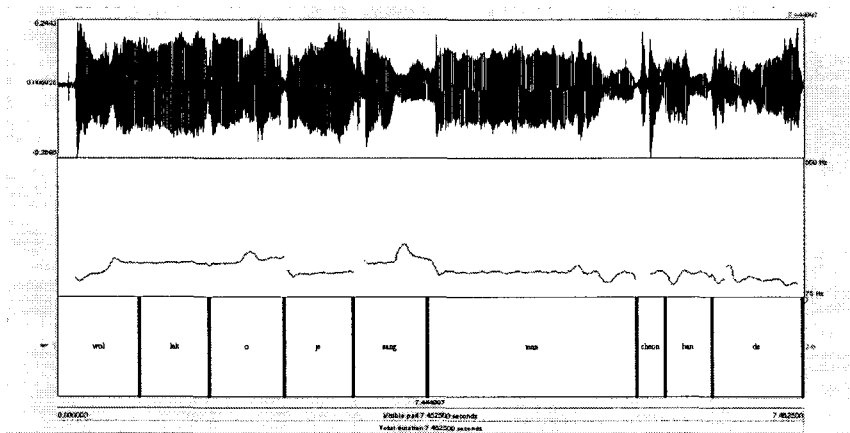


그림 10. 楓橋夜泊 1 절(月落烏啼霜滿天 한테)

<그림 9>와 <그림 10>을 보면 두 편의 1 절이 같은 유형의 고저와 장단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고조는 170-250 Hz, 저조는 100-170 Hz의 영역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2 장에서 제시한 평측의 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시의 평측 구조는 ‘평평측측평평측’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측측평측평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장단의 경우 여섯 번째 한자어를 아주 길게 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자어는 그보다 짧게 나타났고, 토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2 절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1 절과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제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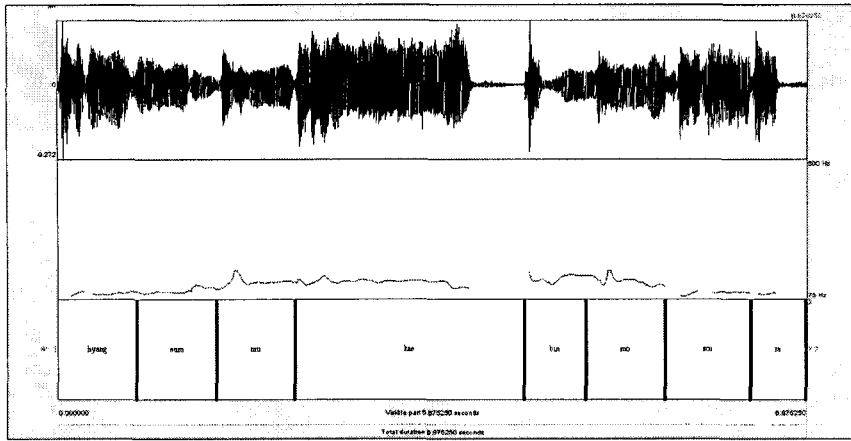


그림 11. 回鄉偶書 2 절(鄉音無改鬢毛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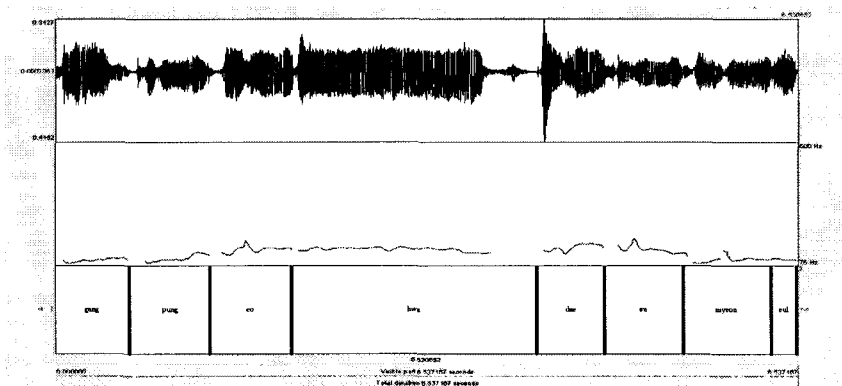


그림 12. 楓橋夜泊 2 절(江楓漁火對愁眠을)

<그림 11>과 <그림 12>를 보면 역시 두 편의 2절이 같은 유형의 고저와 장단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고조는 106-165 Hz, 저조는 83-106 Hz의 영역에서 관찰되었다. 오언시와 마찬가지로 칠언시도 1절에 비해서 2절의 고저 영역이 다소 축소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2장에서 제시한 평측의 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시의 평측 구조는 '측측평평측측평'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는 '평평측측측측평'으로 나타났다. 장단의 경우 가운데에 있는 네 번째 한자어를 아주 길게 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자어는 그보다는 짧지만 비슷한 길이를 보여주었고, 토도 마찬가지로였다.

3절에서도 이론과 실제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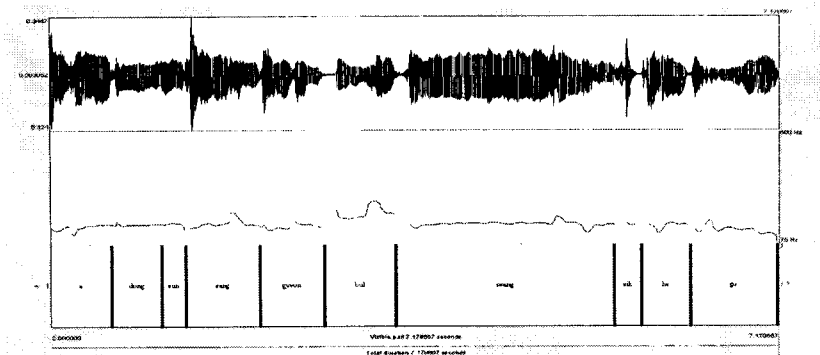


그림 13. 回鄉偶書 3 절(兒童은相見不相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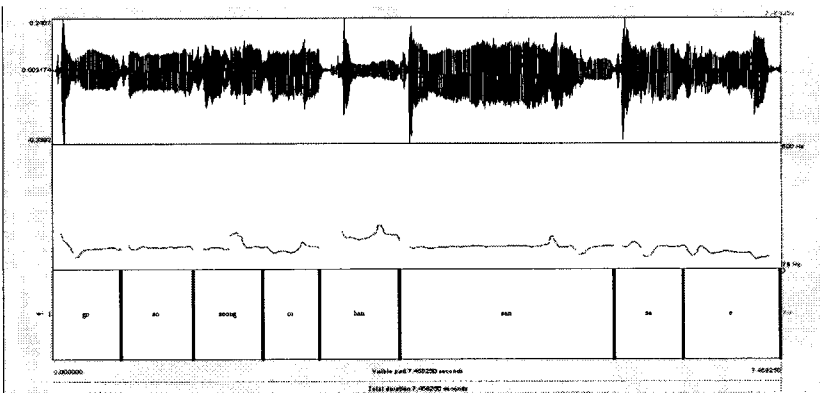


그림 14. 楓橋夜泊 3 절(姑蘇城外寒山寺에)

<그림 13>과 <그림 14>를 보면 두 편의 3 절이 같은 유형의 고저와 장단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고조는 150~236 Hz, 저조는 112~150 Hz의 영역에서 관찰되었다. 오연시와 마찬가지로 칠언시도 3 절의 고저 영역이 1 절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 장에서 제시한 평측의 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시의 평측 구조는 ‘측측평평평측측’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평측평측평평’으로 나타났다. 장단의 경우 1 절과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한자어를 아주 길게 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자어는 그보다 짧게 나타났다. 다만 중간 톤은 <그림 13>의 시에서만 관찰되었는데 역시 짧게 나타났다.

4 절에서도 역시 이론과 실제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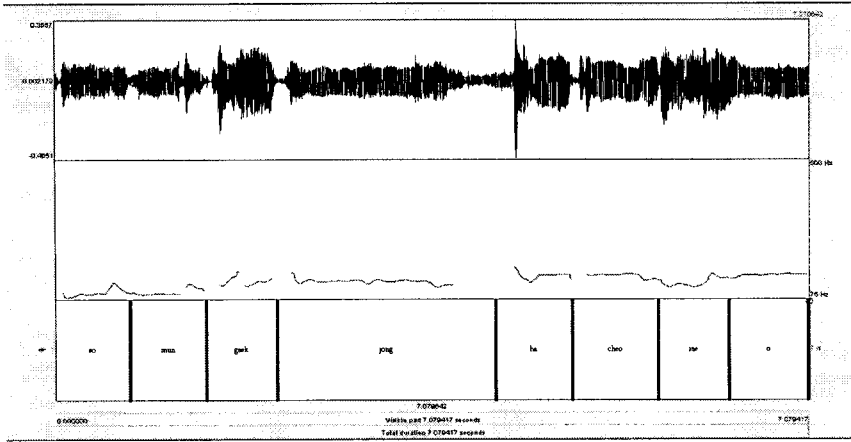


그림 15. 回鄉偶書 4 절(笑問客從何處來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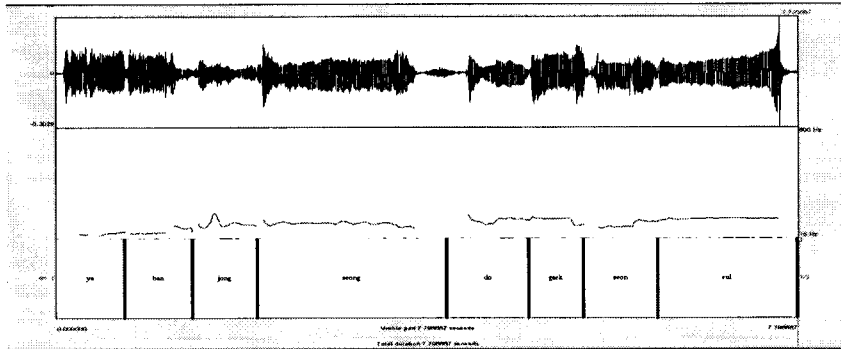


그림 16. 楓橋夜泊 4 절(夜半鐘聲到客船을)

<그림 15>와 <그림 16>을 보면 두 편의 4 절이 같은 유형의 고저와 장단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고조는 125~173 Hz, 저조는 80~125 Hz의 영역에서 관찰되었다. 오연시와 마찬가지로 칠언시도 4 절의 고저 영역이 2 절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 장에서 제시한 평측의 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시의 평측 구조는 '평평측측측평평'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평측측측평평'으로 나타났다. 장단의 경우 2 절과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한자어를 아주 길게 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자어는 그보다 짧지만 비슷한 길이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칠언시의 이론적인 평측의 구조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6) 칠언시의 평측 구조의 이론과 실제 비교

ㄱ. 이론(장단 없음)

ㄴ. 실제(장단 있음)



(6)을 보면 칠언시도 오언시와 마찬가지로 모든 절이 이론과 실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론에서는 1 절과 2 절, 3 절과 4 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실제 녹음 자료에서는 그러한 대칭은 보이지 않고 1 절과 3 절이 비슷하고, 2 절과 4 절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칠언시의 녹음 자료 두 편도 피치 곡선이 같기 때문에 독송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제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녹음 자료의 경우 칠언시도 오언시처럼 1 절과 3 절의 고저 영역이 비슷하고, 2 절과 4 절의 고저 영역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1 절과 3 절의 영역이 2 절과 4 절보다 조금 컸다. 그러므로 실제 한시를 독송할 때 1 절과 3 절의 평측은 좀더 두드러지게 하지만, 2 절과 4 절은 그보다 약하게 평측을 드러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한시의 전체적인 음의 고저 변화에 대한 이해라고 본다. 1 절부터 4 절까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치가 1 절에서 상승해서 그 다음에 있는 2 절에서 하강하고, 다시 3 절에서 상승하고 4 절에서 하강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인 것이다.

장단의 경우도 이론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실제에서는 발견되었다. 짧은 경우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긴 소리의 경우는 일정하게 나타났다. 고저와 마찬가지로 1 절과 3 절이 같았고, 2 절과 4 절이 같았다. 1 절과 3 절의 경우는 여섯 번째 한자음이 길게 나타났고, 2 절과 4 절의 경우는 네 번째 한자음이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칠언시의 고저나 장단 모두 1 절과 3 절, 2 절과 4 절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종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언시와 칠언시 모두 이론적인 평측 구조와 실제 분석 자료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언시와 칠언시의 녹음 자료 모두 각각의 두 편의 피치 곡선이 같았기 때문에 독송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오언시와 칠언시의 관련성도 찾지 못하였다. 원래 오언시의 구조에서 평성이나 측성이 확장되어 칠언시가 되지만, 실험 결과에서는 어떠한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제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 녹음 자료의 경우 오언시와 칠언시 모두 1 절과 3 절의 고저 영역이 비슷하고, 2 절과 4 절의 고저 영역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1 절과 3 절의 영역이 2 절과 4 절보다 조금 컸다. 그러므로 실제 한시를 독송할 때 1 절과 3 절의 평측은 좀더 두드러지게 하지만, 2 절과 4 절의 평측은 그보다 약하게 드러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절 안에서의 평측과 절과 절 사이의 평측 모두를 고려해서

독송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한시의 전체적인 음의 고저에 대한 이해라고 본다. 이점은 지금까지 한문학계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며 어떤 한시 이론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새로운 발견이다. 따라서 한시의 이론적인 평측 연구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장단의 경우도 이론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실제에서는 발견되었다. 이론서에서도 고저뿐만 아니라 장단도 한시에서 고려된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그 장단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짧은 경우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긴 소리의 경우는 일정하게 나타났다. 고저와 마찬가지로 1 절과 3 절이 같았고, 2 절과 4 절이 같았다. 1 절과 3 절의 경우 오연시는 네 번째, 칠연시는 여섯 번째 한자음이 길게 나타났고, 2 절과 4 절의 경우 오연시는 두 번째, 칠연시는 네 번째 한자음이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한시의 고저나 장단 모두 1 절과 3 절, 2 절과 4 절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론과 실제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 현 상황에서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피실험자가 한 명뿐이라는 사실이다. 실험 자료는 바로 한 명의 피실험자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독송 습관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물론 해당 실험 자료 두 편의 피치 곡선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좀더 많은 피실험자를 찾아서 일반성을 찾는다면 지금의 결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시의 독송을 자연스럽게 구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더 찾는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구전되는 독송 학습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오랜 역사를 거쳐 모든 이들이 스승의 범독을 따라 하면서 독송 방법을 터득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제시한 평측의 구조와 달리 실제는 조금씩 변모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이론과 실제에 많은 괴리가 생겼을 것이다. 한시도 언어 자료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셋째, 해당 자료인 한시가 당시(唐詩)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시를 읊는 사람이 당나라 사람이 아닌 현대의 한국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그 시의 울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성조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언어의 운율적인 요소도 변모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한시를 그 울격 그대로 간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평측의 구조가 어떠한 모습인지 안다 하더라도 그대로 독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 한시 전문가의 독송을 녹음하는 방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넷째, 한문학계의 편향적인 연구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지금까지 한문학계는 한시의 내용에만 관심을 두고 연구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운율도 중요한데, 그 점을 간과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한시의 전문가인 피실험자도 자신이 당연히 이론대로 독송한다고 생각했지, 본 연구의 결과처럼 다르게 독송한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문학계에서도 평측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실험적인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5. 결 론

지금까지 한시의 이론적인 평측법을 음향분석프로그램인 Praat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분석하였다. 한시의 평측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과연 한문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시의 평측이 실제로 독송할 때 그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이론과 달랐다. 평측의 구조가 오연시든 칠연시든 모두 이론과 실체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연시의 이론적인 평측 구조는 “측측평평측, 평평측측평, 평평평측측, 측측측평평”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평측 구조는 “측측측평(장)평, 평측(장)측측평, 평평측평(장)평, 평측(장)측측평”으로 나타났다. 고저와 장단 모두 이론과 실체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론에서는 1 절과 2 절, 3 절과 4 절이 평측의 대칭을 이루나, 실제 녹음 자료에서는 그러한 대칭이 보이지 않았다.

칠연시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평평측측평평측, 측측평평평측측, 평평측측측평평”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평측측평평(장)평, 평평측측(장)측측평, 평평측평평(장)평, 평평측측(장)측측평”으로 나타났다. 이론에서는 1 절과 2 절, 3 절과 4 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실제 녹음 자료에서는 그러한 대칭은 보이지 않고 고저와 장단 모두 1 절과 3 절, 2 절과 4 절이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제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이론과 실제에 차이가 있는지 몇 가지 원인을 추정해 보았다. 피실험자가 한 명뿐이라는 사실, 구전되는 독송 학습 방법, 해당 자료인 한시가 당시(唐詩)라는 점, 한문학계의 편향적인 연구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통해서 본 연구의 아쉬움도 알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추후의 연구 과제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좀더 많은 한시 자료를 선정한 뒤 국내외의 한시 전문가를 찾아서 그들의 독송을 녹음하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뛰어 넘어 한시의 평측 구조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회산. 2003. “언어와 민요의 운율 자질에 관한 음향음성학적 연구.” *음성과학* 10(3), 133-144.  
 김장순. 2002. *한국민요 발성법의 음성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기, 홍기환, 김선숙. 2004. “한국 현대시 운율의 음향 발현.” *음성과학* 11(3), 181-192.  
 손종섭. 1995. *옛 시정을 더듬어*. 서울: 정신세계사.  
 손종섭. 1999. *우리말의 고저장단*. 서울: 정신세계사.  
 심경호. 2006. *한시의 세계*. 서울: 문학동네.  
 王 力. 2004. *한시 율격의 이해(배규범 역)*. 서울: 보고사.  
 정 민. 1996. *한시미학산책*. 서울: 숲.  
 Moon, Seung-Jae. 2001. “General Acoustical Characteristics of Pansori Singing Voice.” *Malsori* 42, 15-24.

접수일자: 2007. 7. 23

게재결정: 2007. 8. 31

▲ 조성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 (우: 133-791)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Tel: +82-2-2220-0738(O)

E-mail: mooni67@hanyang.ac.kr